



세종시를 어찌할꼬?

이즈음 이 나라 정계에서는 세종시 문제로 원안 고수파와 원안 수정파로 나뉘져 거의 막말에 가까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이만저만 지겹고 괴로운 일이 아니다. 세종시의 본 취지는 누가 보아도 수도를 옮기는 천도인 것이었다. 천도가 너무나 무모한 일이니까 3부를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9부 2처 2청을 옮기는 것으로 낙착이 되고 새 서울시가 아닌 세종시가 된 것이다. 이즈음의 언쟁으로 보면 세종대왕을 욕보는 일이 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국력을 기울이고 민심을 모아서도 풀기 어려운 국가적인 난제가 어디 한 둘인가? 북쪽의 핵위협, 심각한 대실업사태, 과격한 노동운동, 급증하는 강력범죄 거기에 인플루엔자 보태어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엉뚱한 세종시 문제로 격앙된 감정으로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세종시 문제는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한 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 민심에 잠재되어 있는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意識)이 낳은 것이다. 일제(日帝)에 의해 조국 조선조가 멸망하여 35년 동안이나 일제의 노예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극에 달한 관존민비사상으로 국력이 쇠퇴하였기 때문이었다. 돼지 한 마리를 묶으려 하여도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소란을 피우는데 한 나라가 묶이어 넘어가는데 소리 지를 기운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어디 이 민족이 침략해온 일본과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았는가? 국력이 쇠퇴해 힘 한번 못쓰고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도 이 겨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출신학교 교문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랑하고 있으니 이 나라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겠다. 지금은 군주주의시대가 아니고 민주주의시대이다. 민(民)이 나라의 임자이다. 민주공복(民主公僕)의 시대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의 입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대통령이 못된 사람들은 모두 실패한 인생이란 말인가? 참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성공한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생에서 참된 성공의 증표는 사람이 속으로 부드럽고 성숙된 인격으로 자라는 것이다.(The true mark of success in life is growth of tenderness and maturity in a man)” (M. K. 간디 『날마다의 명상』) 이 말은 고쳐 말하면 탐·진·치(貪瞋痴)의 짐승 성질을 죽이어서 진·선·미(眞善美)의 영성(靈性)을 기른 이가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다.

그래서 류영모는 말하였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이 땅위의 세상을 잘 하여야 한다거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위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끝내 헛일밖에 안됩니다. 하늘에다 먼저 할 것을 환상계(幻象界)인 이 세상에 먼저 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질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땅위에서 참(眞)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인 참이지 온전한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하늘에다 두고 몸을 곧게 하여 열로 하늘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류영모, 『다석강의』)

청와대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찬하던 이가 5년 뒤에는 대통령이란 무서운 자리라 함부로 할 것이 못 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유언이야말로 소중한 말인 것이다. 이 한 마디를 남김으로서 그이는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귀한 말씀은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대통령 하고 싶어 하

는 분들이 전혀 알아듣는 것 같지 않으니 말이다.

관존민비의 의식이 살아있는 것을 꿰뚫어 본 그 분이 충청도민의 표를 얻고자 공주 근처에 새 서울을 세우겠노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충청도민들에게 관존민비의 의식 따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새 서울 시민이나 새 경기도민이 되기보다는 충청도민 그대로가 좋으니 우리를 알아보는 듯한 그런 말은 하지마시오라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촌놈이 서울사람이 된다니까 덜컥 물표를 찍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그 분의 입에서 “내가 재미를 좀 보았지”라는 호기스런 말이 나왔다. 그 말을 충청도민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결코 충청도민을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말은 아닌 것으로 들린다. 이 현실을 목격한 정치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것이다. 한 표가 아쉬운 터에 물표가 그 어디인가? 대권 소권에 욕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라 일보다는 제 당선되는 것이 급하니까 너도나도 세종시 지지자로 변해버렸다. 지금 충청도민들에게 정중히 물어보고 싶다. 새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냐고 말이다. 지금 헝클어진 실타레가 된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민이 풀어야 한다. 충청도민만이 쉽게 풀 수 있다. 충청도민들이 이 나라의 망국병인 관존민비사상을 버리면 되는 것이다. 충청도민들이 우리는 깍쟁이 서울사람 소리 듣기보다는 순진한 촌놈 소리 듣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이 나라 후손 대대로 존경받는 충청도민이 될 것이다. 충청도가 낳은 이 겨레가 우러르는 애국지사 김좌진, 한용운, 윤봉길, 류관순, 조병옥님의 영전에 엎드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와 충청도에 유익한지 물어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20세기에 성자 소리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레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하였다. “군국주의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모든 정부가 국민에게 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롭지 않을 수는 있다. 중국사람들이 흔히 가정하듯이 완벽한 성군(聖君)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말이다. 하지만 통치활동의 본질에 따르자면 정부는 늘 성스러움과는 반대되는 사람들 곧 뻔뻔스럽고 파렴치하며 비뚤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군사력이 막강한 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이다.(……) 정부조직은 원뿔모양을 이루는데 원뿔의 꼭지점 곧 정상(頂上)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활하고 뻔뻔스러우며 비양심적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톨스토이 『국가는 폭력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어느 정도 후안무치한 악한은 걸르지만 민주주의 제도에서도 집권자들이 그 시대에 가장 어진 인격자는 아닌 것이다. 어진 이들은 아예 권력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땅위에 이백 개에 이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마다 권좌에 오른 이들의 면모를 살필 때 존경스런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톨스

토이의 말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임금이 있어서 사람들 위에 앉아 충성을 바치라고 하였다. 사람이 사람위에 앉아있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닌가? 지금은 민주정치로 밝아진 세상이다. 민주정치가 시행되는 이 땅에 아직도 우스운 사람이 있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세상에서 높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민족이야말로 마지막에 이른 우스운 민족이 아닐 수 없다.”(류영모 『다석어록』)

석기보다는 80살에 죽으면서 죽음의 장소를 그 당시 인도 변두리인 쿠시나가라로 정하였다. 그러자 아난다가 큰 곳으로 하자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석기는 뜻을 꺾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곳이라도 참된 사람이 인연을 맺으면 거룩한 곳이 된다고 말하였다.

예수는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한 18:36)라고 하였다. 석기보다는 가필다국의 왕국을 헌신발처럼 버렸다. 예수 석가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유사 이래 그들보다 참되게 보람되게 살은 이가 없다. 이 민주의 시대에 행정부를 끌어오는 것이 그렇게 영광된 일이라니 어이가 없다. 충청도민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